

어린이 도서관에 있어서 장소성 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mbodying the Sense of Place in Children's Libraries

Author 이정미 Lee, Jeong-Mi / 정희원, 인덕대학 도시환경디자인과 전임강사, 디자인학박사
곽동화 Kwack, Dong-Wha / 정희원,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조교수, 디자인학박사
천혜선 Cheon, Hye-Sun / 정희원, 상명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강사, 공학박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icit the planning factors for the embodiment of sense of place in public library. This study analyzes qualitatively the good places where the children seek for and evaluate in children's library. The primary method of survey in this study is the caption evaluation. The survey is conducted in libraries of three types. In the caption evaluation, children take good places into photograph by themselves and are asked for reasons, features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for the pictures on good places. Through the study of the preceding studies, this study takes four analysis frames, Path, Occupancy Place, Edge and Mark. According to four analysis frames, the principal features,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examples in libraries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are put in order. The mean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ings; presenting the method of user's positive evaluation, studying the sense of place in children's view point, and presenting the interrelation pattern for embodiment of the rich sense of place.

Keywords 장소성, 사진평가법, 어린이도서관
The sense of place, Caption evaluation, Children's librar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들어, 어린이 독서환경에 대한 질적 수준의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에 있어서 다양한 디자인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가나 실내디자인 등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좋은 이미지로 평가되는 공간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면 그들의 의견이나 선호경향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여기서, 어느 공간에 대하여 이용자가 막연하게 “좋다/나쁘다”의 평가를 하는 것은 어떤 단서에 의한 것일까? 어린이관련 시설에 있어서 어린이가 한 공간을 시각적, 행동적으로 경험한 후 기억 속에 뚜렷한 이미지로 남겨나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장소에는 어떠한 공간적 구조와 계획

요인이 관여하는 것일까? 바로 여기에 풍부한 공간이미지를 생성하는 공간계획의 단서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공간의 선호도 경향을 읽기위한 기존 연구사례에서는 행동관찰조사 및 SD법에 의한 선호도 조사 등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용자의 수동적인 반응을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데 조사방법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용자의 ‘사진평가법(caption evaluation)’이라는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심리적 평가구조와 물리적 공간구조의 연결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어린이도서관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장소성을 구현하는 계획요소를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에 해당되며 기존 시설의 수장환경 개선 방향 및 향후 신축 박물관 수장고의 공간계획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어린이도서관의 공간구성에 한정하기로 한다. 우선, 어린이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에 있어서 2~3회에 걸친 기초조사로써 이용자의 체류장소분포 및 이용행동을 조사하여 해당도서관의 전체적인 이용현황을 파악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해당 도서관을 한 달

* 이 논문은 200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7-321-H00003)




에 2회 이상 사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자유롭게 공간내부를 걸으며 평소 좋아하는 장소,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촬영한다. 촬영사진은 1인에 10매 이내로 한다.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선호여부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 공간 또는 요소의 특징 및 인상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자유기술로 명기한다.

조사대상자는 의사표현 및 자의적인 전달이 가능한 유치부(6세)~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표 1> 조사대상관의 개요

도서관명	건축개요	공간구성
연수 어린이도서관 (Y관) 611.61㎡		· 3층 구성으로 1층은 영유아-초등학교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코너와 아가방으로, 2층은 초등학생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예술(600)~역사(900) 도서, 참고도서, 디지털자료실로, 3층은 성인 및 초등학생 대상의 종류(000)~과학도서(500)와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어 있음.
부평 기적의 도서관 (B관) 561.21㎡		· 천정고가 높고 일부층이 종이층으로 구성된 오픈플랜형 어린이전문도서관임. · 1층은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과 이야기책(800), 언어영역(600,700)을 중심으로 배가되었고, 독립된 영유아방이 있음. · 종이층의 공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종류(000)~기술과학(500), 역사(900)와 성인도서가 배가되어 있음.
의정부 과학도서관 어린이실 (U관) 528.52㎡		· 어린이실은 4층 중 1층의 한 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오픈 플랜으로 구성되어 입구에서부터 전체 공간의 인지도가 좋고 외부창측에 면하여 벽으로 구분된 3개의 위요공간을 구성하고 있음. · 입구에서 가까운 곳부터 그림책과 이야기책, 안으로 들어갈수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서가 배가됨.

<표 2> 본 조사의 개요

조사유형	본 조사일시		참가자 대상		
			참가자수	데이터 수	
사진촬영 + 자유기술	Y관	2009. 03. 15. (일)	25명	74명	137 장
	B관	2009. 03. 22. (일)	22명		121 장
	U관	2009. 03. 29. (일)	27명		150 장
					408장

<표 3> 사진촬영카드의 예(B관)

○ 정리번호 (B-27)	
<사용자 정보>	
나이	7세
성별	여자
동반	형제동반 3명
이용 패턴	4~5회 방문/1달 2~3시간채류/1회방문시 2, 3장소를 반복해서 왕복이용함.
종합 평가	기본 좋다
선택 이유	▷창밖에 나뭇잎을 보면서 책 읽으면 폭신한 구름같이서 참 기분이 좋아. ▷의자에 앉으면 폭신평신헌.

<표 3>은 사진촬영데이터와 그 이유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장소의 이미지를 가능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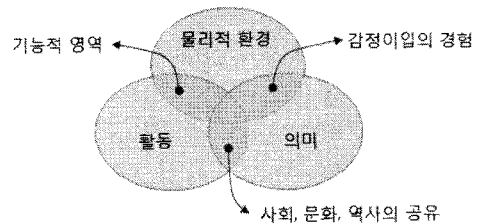
다양하게 수집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도서관의 이용도에 대하여 질문하고 해당도서관을 10번 이상 이용한 어린이, 그리고 한 달에 2번 이상 이용하는 어린이를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장소에 대한 이미지

2.1. 장소의 본질

우리가 어떤 공간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갖는 처음 이미지는 공간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목적행동을 행하는 등의 편리함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시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공간의 이미지는 행동하기에 익숙해져서 단조로운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사용할수록 애착이 가고 더욱 친근한 공간이미지로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한다.

인간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는 '장소'는 체험하는 자에게 있어서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갖는 공간이 된다. 칸타는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를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로 보았는데, 여기서 활동과 의미는 곧 물리적 환경에서의 인간행위, 행위의 목적이나 경험 그 자체를 근원으로 한 것이다. 칸타가 언급한 장소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서로 분리시켜 설명하기보다는 상호관계성으로부터 정체성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랄프는 이 세 가지 구성요소간의 상호결합으로부터 장소의 독특한 구조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그림 1>이다. '장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융합하여 체험자와 동일시되었을 때 더욱 강하게 인식될 수 있다.



<그림 1> '장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의 상호관계

랄프는 장소의 본질을 외부와 구별되는 내부의 경험 속에 있다고 하였다¹⁾. 또, 린든은 장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 분리된 내부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는 이원적인 관점은 주체가 어디에 위치하여 어느 곳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갖는다.

즉, 주체가 물리적 환경 및 타인의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간접체험에 의한 사회적 공유로써 장소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반면, 주체가 활동의 중심에서 물리적 환경을 체험한다면, 주체는 이미 장소에 둘러싸여 있는 것

1) 에드워드 켈프저,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옮김, 논형, 2005, p.116

이다. 주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이곳과 저곳을 규정하게 되고 그 경계는 강한 성격을 띄기도 하고, 또는 융통적인 가능성을 포함하기도 하면서 주체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곳과 저곳을 넘나드는 체험자의 의도가 변화됨에 따라 내부와 외부로 구분 짓는 경계도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움직일 때마다 인간을 둘러싼 주변의 지각영역 또한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지각공간의 중심이며 항상 장소 안에 정위하는 것이다.

2.2. 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요소

좋은 장소란 알기 쉬우면서도 풍요로운 이미지의 공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나 공간이 어떻게 인지되는지에 관한 연구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표 4>는 공간의 스케일에 따른 공간구성요소의 설정에 관한 비교논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공간구성요소의 대조적 관점

저자	공간체험규모	공간구성요소				
케빈 린치 ²⁾	도시적 스케일	통로	결절점	구역	모서리	랜드마크
C.N.슐츠 ³⁾	모든 스케일에 적용	통로	장소	영역	-	-
C.W.무어 ⁴⁾	건축적 스케일	통로	장소	패턴	모서리	-
본 논문	실내건축적 스케일	통로	거점영역		경계	표식

케빈 린치는 [Image of the city]에서 도시의 실질적인 지각요소를 이미지요소로 전환시켜 통로(path), 결절점(node), 구역(district), 모서리(edge), 랜드마크(landmark)로 정리하였다.

C. N. 슐츠는 공간이미지로서의 구조란 실질적인 체험과 학습 등에 의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 인간의 심리적 공간의 내면에 이미지로써 실존하고 있다고 했다. 슐츠는 실존적 공간과 건축적 공간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구성요소로서 [중심과 장소], [방향과 통로], [구역과 영역]을 제시하였다.

C. W. 무어는 건축공간은 신체를 통해 피부 감각적으로 경험되어 이미지로 기억된다는 관점에서 장소, 통로, 패턴, 모서리의 4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위의 세 관점은 건축적 스케일에서 도시적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체험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공공도서관 및 유사한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다년간 모집한 관찰사례들에 대한 지견을 참고로 하여 4개의 구성요소 즉, [통로 ; Path], [거점영역 ; Occupancy Place], [경계 ; Edge], [표식 ; Mark]를 설정하였다.

[통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세 사람 모

두의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요소이다. 케빈 린치는 “path란 관찰자가 일상적으로 또는 때때로 지나는 줄기의 맥과 같다”라고 하였고⁵⁾, 슐츠는 이에 덧붙여 물리적으로 지나는 것 뿐 아니라, 이념적으로 지나는 것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⁶⁾. 슐츠는 단순히 지난다라는 독립적인 행위보다는 다수의 요소들을 서로 연결시켜 의식적으로 구조화시키는 데 주안점으로 두고자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최근 도서관건축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는 오픈플랜이나 온돌마루에서의 [통로]의 기능과 다소 연결되는 점이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용하는 온돌마루는 어디에나 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복도 등지에서조차 연결통로이면서 정체공간으로 사용되는 예가 흔히 발견된다. 여기서 [통로]란 영역과 영역을 잇는 ‘연결성’을 갖는 선형 공간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거점영역]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심이 되거나 행위의 목표 또는 실마리가 되는 영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관련하여 케빈 린치의 결절점은 엄밀히 장소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결절점이 도로의 교차점과 같이 하나의 지점에 응집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거점영역]의 개념으로 연결시켰다. 슐츠와 무어의 [장소]개념은 중심성을 중요시한다. 자아가 정위하는 중심이 곧 내부이며 그 밖은 모두 외부가 된다. 내부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주변영역의 한계는 다양한 형태의 경계요소로 규정지을 수 있다. 린치의 구역과 무어의 패턴은 도시적 스케일로 본 영역의 개념으로서 슐츠의 장소개념과 동일시된다. 즉, [장소]개념은 중심성을 가지며 경계요소에 의해 한정되는 외부와 구별되는 내부공간이다.

[경계]에 대하여 슐츠는 ‘장소의 건축적으로 중요한 성질은 경계가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며 이것이 심리적, 물리적인 보호를 보증하고 있다’고 하였다⁷⁾. 이처럼 경계는 공간을 한정하거나 구분하는데 불가결한 요소로서 이에 의해 무의미한 공간을 특정의 성격이나 분위기를 갖는 장소로 변화시킨다. 경계는 구분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 두 공간의 상호연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벽과 같이 공간의 성격을 강하게 규정지으며 문을 통해 외부와의 연결을 한정짓는다면, 낮은 칸막이나 유리벽과 같이 시각적인 맥락을 유지하면서 행동을 규제할 수도 있다. 또한, 어떠한 물리적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일정공간을 비워두거나 바닥의 온도차 등을 이용하여 공간의 성격을 특징짓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경계]는 자아가 정위한 중심에 있어서 외부와 구별되는 내부를 인식하게 하는데 중요한 차단요소가 된다.

[표식]에 대하여 케빈 린치는 “랜드마크란 특이성, 즉, 주변과 차별되어 두드러지며 기억하기 쉬운 특징”으로서

2)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60
 3) C.N.Schults, 실존·공간·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85
 4) C.W.Moore, 玉井一國 譯, 建築デザインの基本, 鹿島出版會, 1980

5) 전계서 2), p.56
 6) 전계서 3), p.121
 7) 전계서 3), p.114

명료한 형상, 배경과의 대조, 차별되는 공간배치를 성립 조건으로 들고 있다. 랜드마크는 눈에 잘 띄고 기억하기 쉬우므로 특히 어린이에게 있어서 체류행위나 거점이 되는 장소를 선택하는데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식]은 특히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 상징성을 부여하여 책에 대한 흥미를 진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표 5>는 문헌연구 및 기존도서관의 탐방조사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소이미지를 구현하는 기본 공간구성요소로써 정리할 분석틀의 관점과 그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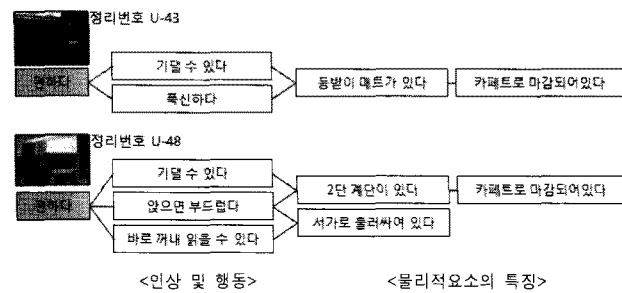
<표 5> 공간구성요소의 정의 및 특성

구성 요소	정의	특성
통로	영역과 영역을 연결하는 이동 동선	연결성
거점 영역	행위주체자의 중심으로부터 일정규모의 한계를 갖는 영역	중심성 한계가 있는 영역성
경계	안과 밖을 구분하는 매개체 또는 공간	구획성
표식	주변과 차별되는 특성의 물리적 요소	차별성

3. 어린이의 시선으로 본 장소의 평가구조

3.1. 사진촬영조사데이터의 분석과정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 어린이의 시점으로 본 좋아하는 장소의 조사데이터를 중심으로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를 단위로 한 정성적인 평가구조모형을 추출하였다. 우선, 본 조사에 앞서 행한 수차례에 걸친 예비조사 즉, 의견청취 및 관찰조사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대체적인 선호경향에 입각하여, 개인단위의 사진촬영조사결과로부터 선호 장소에 대한 평가구조모형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의 어린이전체단위의 평가구조를 집계하여 관계도로 나타내었다.



<그림 2> 개인단위 데이터의 평가관계도 예(U관)

<그림 2>는 두 사람의 조사카드로부터 추출한 평가항목들을 관계도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조사당시, 면접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내용 즉, 사용자가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이 가능하며, 장소의 물리적요소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각의 평가내용을 정리하여 관계로 표현할 수 있었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장

소에 대하여 동일하게 ‘편하다’의 인상을 갖고 있었지만, ‘기댈 수 있어서’ 또는 ‘부드럽거나 폭신해서’ 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정이유를 읽을 수 있고, 그러한 인상이나 행동을 가능하게 한 물리적 요소는 비교적 다양하면서도 그 안에서 통일된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평가구조의 관계 속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소이미지의 다양성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집약적으로 모여진 인상과 물리적요소의 궁극적인 특성을 추출해 내기 위하여 가능한 한 자유기술로부터 변형되지 않은 어휘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3.2. 관별 특성으로 본 장소의 평가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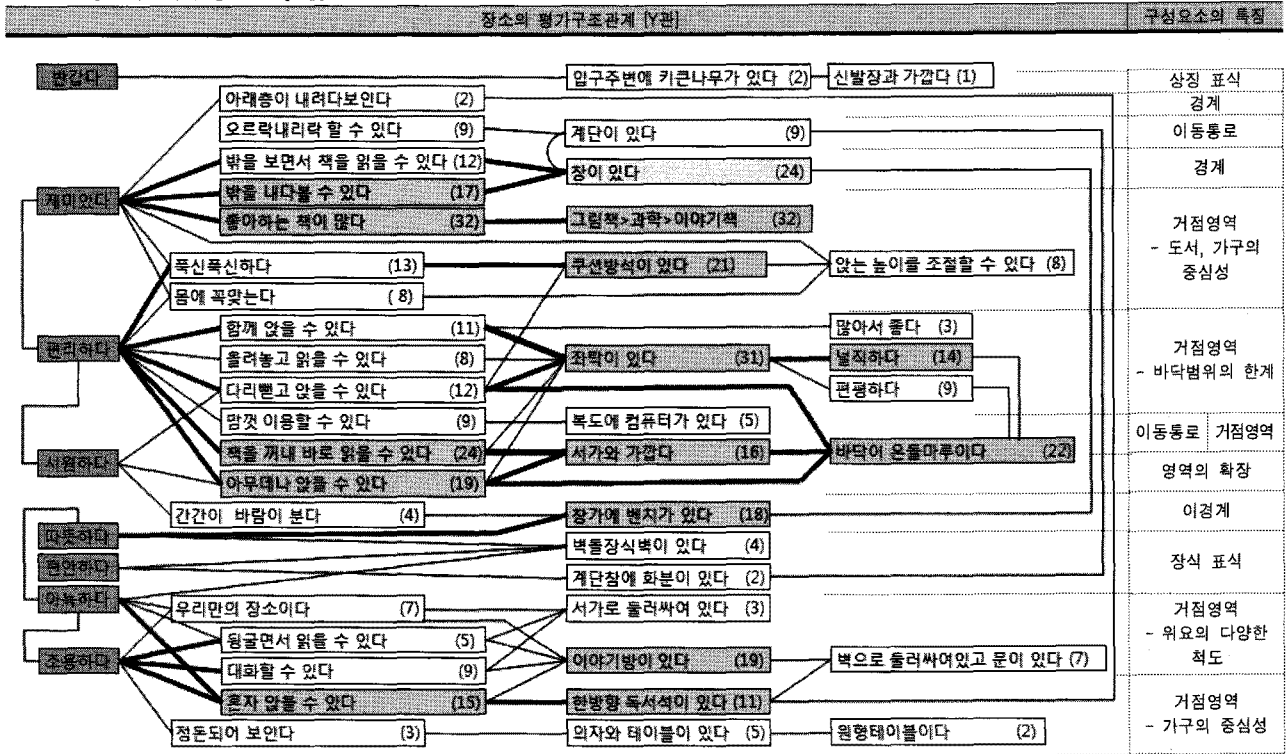
<표 6>~<표 8>은 관별로 조사대상의 어린이전체의 장소이미지를 평가하는 구조를 관계도로 나타낸 것이다. 오른쪽에 명기한 구성요소의 특징은 평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의 장소에 있어서 구성요소의 형태유형을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Y관]의 경우 ‘반갑다’, ‘재미있다’, ‘편리하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편안하다’, ‘아늑하다’, ‘조용하다’의 등의 어휘를 종합평가로써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Y관]은 3층 구조로써 층별로 이용자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책이 배가된 1층에는 영유아와 동반부모가 이용하여 비교적 혼잡한 분위기인 반면, 2층에서 3층으로 갈수록 초등학교 중심의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건축물의 특성상 공간의 한 면이 전면 유리창이고 그 주변에 앉을 곳 즉 벤치나 좌탁을 배치하고 있으며 공간의 안쪽으로 서가를 배치하였다.

[Y관]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곳은 창 옆의 벤치와 좌탁이 있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평가내용으로써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책을 읽는 것이 재미있다’, ‘창밖의 나뭇잎이 폭신폭신햐해 보인다’ ‘사람과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것이 보여 재미있다’ 등 2층높이에서 바깥풍경이 내려다보이는 것이 재미있게 인식되고 있어 눈높이 아래의 창을 선호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좌탁은 ‘넓어서’, ‘가족이 함께 앉을 수 있어서’, ‘다리를 뻗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내용과 함께 좌탁에 세팅된 쿠션방식은 ‘앉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재미있다는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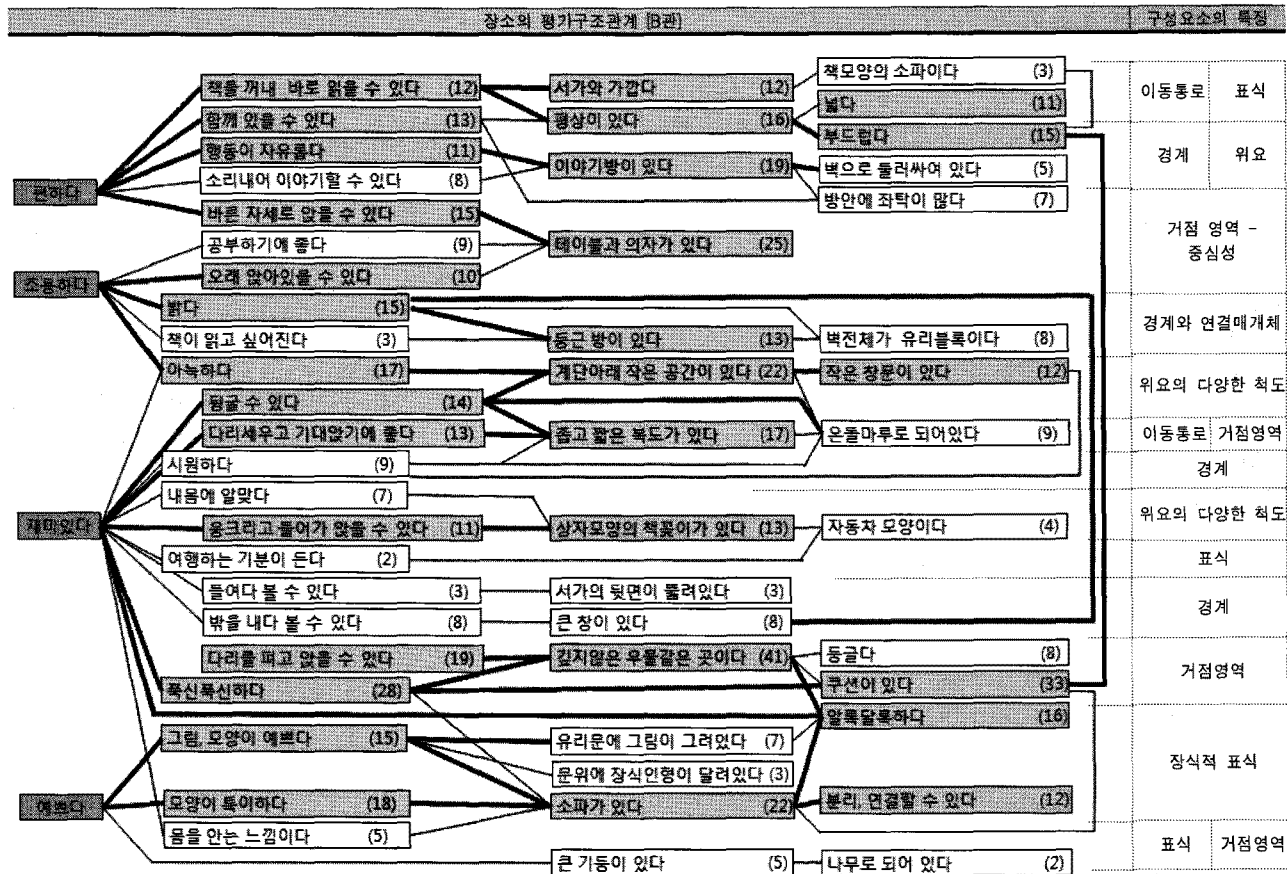
[Y관]은 전체 온돌마루로 어디에나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넓은 좌탁을 두어 앉는 행위가 비교적 자유롭다. 어린이의 평가에서도 이것과 연관된 평가를 읽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책을 읽는 거점장소는 좋아하는 책이 있는 서가를 중심으로 선택하거나 서가와 서가 사이 공간을 [아늑하다], [조용하다], [자유롭다]라고 평가하고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창 주변의 바닥에 대해서 6~7세 어린이들 사이에서 ‘시원해서 기분 좋다’는 의견이

<표 6> 장소이미지의 평가구조[Y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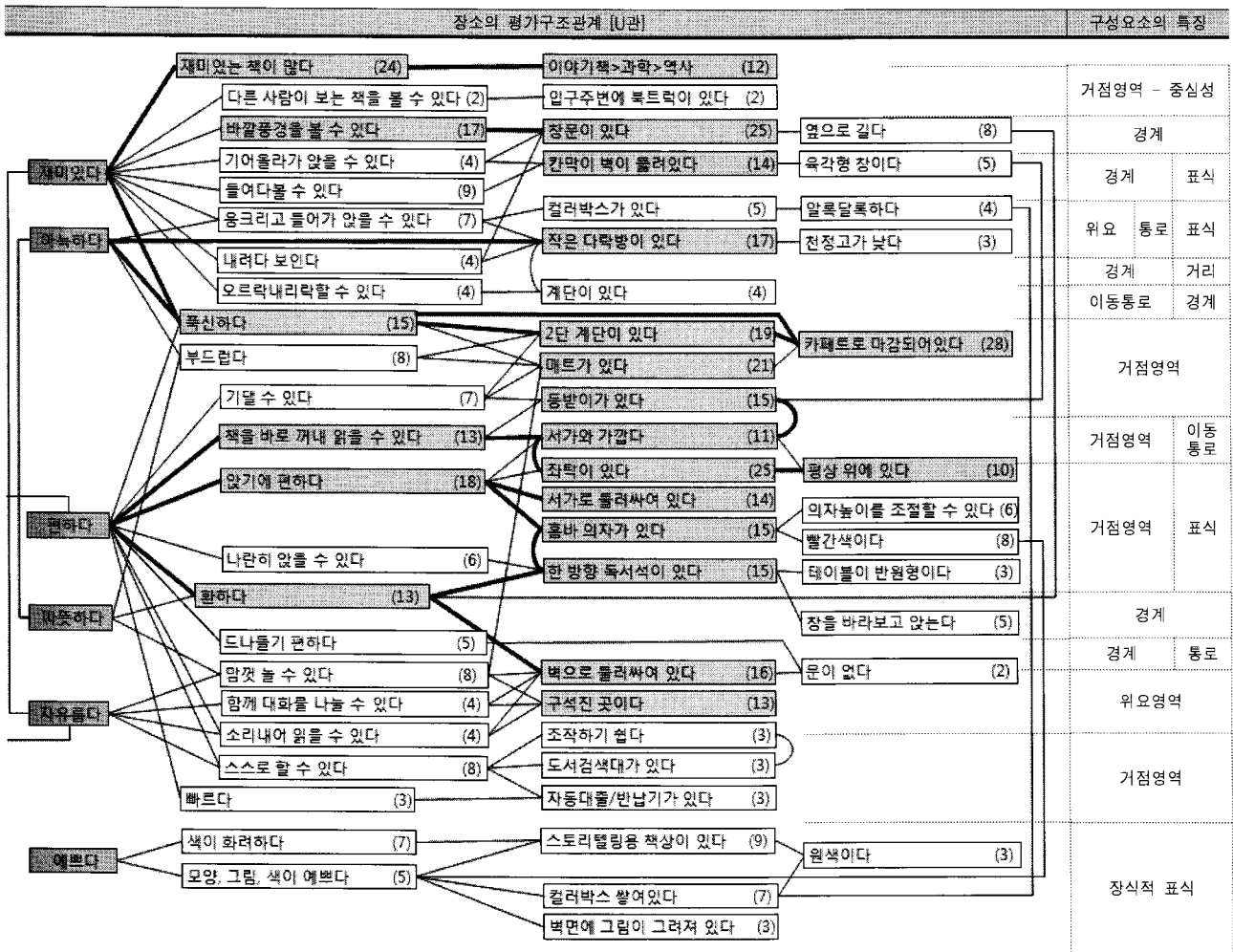
■ ; 10사례 이상의 경우

<표 7> 장소이미지의 평가구조[B관]



■ ; 10사례 이상의 경우

<표 8> 장소이미지의 평가구조[U관]



■ : 10사레 이상의 경우

있었다. 2층과 3층의 아동서 코너에서는 좌탁보다는 서가와 서가사이 공간, 창열의 서가 주변공간을 좋은 장소로써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이야기방처럼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완전히 차단된 독립실에 대하여 '뒹굴 수 있어서 자유롭다', '조용하다' 등의 평가를 읽을 수 있었다. 또, [Y관]은 창밖풍경, 키큰나무 모형, 화분 등 자연요소에 대하여 '자연스럽다', '친근하다' 등의 평가를 비교적 자주하였으며, 이와 함께 벽돌장식 벽의 테이블공간에 대하여 '따뜻하다', '친근하다' 등의 이미지의 좋은 장소로 선호하였다.

[Y관]은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코너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서 코너가 층으로 구분되어 각 이용특성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 외부 전면창에 내부공간이 노출되어 있고 자연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점, 도서의 배가방식이 정돈되어 있어 공간구성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점이 '편리하다', '편안하다', '따뜻하다', '아늑하고 조용하다', '재미있다'의 평가가 각각 균형있게

안배된 것과 연결된다고 판단된다.

[B관]은 좋은 장소로써 '편하다', '조용하다', '재미있다', '예쁘다' 등 몇 가지의 평가어휘로 응집되어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미있다'의 평가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평가내용으로써 '뒹굴 수 있어서', '폭신폭신힌서', '들어다보거나 내다볼 수 있어서', '웅크리고 들어가 앉을 수 있어서' 등과 같이 비교적 자유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나 공간에 대하여 좋은 장소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관]의 경우, 온돌마루로 어디에나 앉을 수 있는데다 바닥을 우물처럼 1단 파고 들어간 공간이나 어린이의 신체 스케일을 고려하여 몸에 딱맞는 쿠션의자에 부드러운 재질의 천으로 마감한 것이 어린이들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넓어서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 폭신폭신했 천으로 마감된 소파는 앉았을 때의 감촉과 쿠션감이 '재미있다'는 평가로 연결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미있다'는 평가와 함께 '형태와 컬러가 예쁘다'의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용하다', '편하다'의 이미지는 중이층에 위치한 고학년 아동서 코너의 이야기방과 4인용 원형 테이블석 주변에 대하여 나타났다. 공간안에 작은 공간이 있는 듯한 느낌을 부여하여 오픈된 장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늑하고 조용하다는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특히, 원형의 이야기방은 벽의 전면을 유리블록으로 마감하여 항상 빛이 은은하게 잘 드는 것이 특징인데, 어린이들은 이 장소에 대하여 '책이 읽고 싶어진다', '밝다', '환하다'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의자와 테이블석에 대해서는 주로 5, 6학년의 고학년층에서 주로 언급되었는데, '허리가 아프지 않아 오래앉아 있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 '친구와 함께 앉을 수 있어서 좋다', '공부하기에 좋다'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어디에나 앉을 수 있는 온돌마루나 자유롭게 뒹굴 수 있는 카페트 마감의 독서공간이 비교적 많은 [B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자와 테이블석에 대하여 좋은 장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 3~5학년의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가구의 컬러나 앉았을 때의 촉감, 문에 달린 장식 굵은 기둥, 소파의 이동성이나 조작성(조립할 수 있는) 등은 특이요소로써 표식(Mark)의 효과를 주어 장소로 인식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학년의 경우에는 난간이나 서가뒷면의 일부분을 뚫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재미있다'고 평가된 것도 특이할 만한 점이다.

[U관]은 1층에 위치한 어린이실에 한해서 선호하는 장소에 대한 조사를 행하였다. [U관]은 [Y관]의 편안하고 차분한 이미지와 [B관]의 재미있고 동적인 요소가 병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좋아하는 장소에 대하여 주로 사용한 어휘는 '재미있다', '아늑하다', '편하다', '따뜻하다', '자유롭다', '예쁘다'였다. 좋은 장소로서는 외부창측에 면한 벽으로 구획된 3개의 공간과 내부창 주변의 한 방향 독서석을 좋은 장소로써 주로 선택하였다. 공간의 중앙부는 그림책-아동서의 배가흐름을 좋게 하고 중심부에 원형 평상을 두어 저학년어린이의 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부 창측에는 안정된 분위기의 한방향 독서석이 있는데 '조용하다', '앉기 편하다', '홈바의자의 컬러가 예쁘다', '홈바의자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편하다' 등의 평가를 하였다. 맞은편 외부창측의 벽에 면한 3개의 방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 '옆으로 긴 창으로 바깥풍경을 볼 수 있어서 재미있다', '서가를 둘러싼 계단이 아늑하다, 폭신폭신하다' 등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영유아코너의 바닥에 놓인 컬러 박스나 천정고가 낮은 다락방에 웅크리고 들어가 있거나 칸막이벽에 뚫린 육각형의 넓은 창틀위에 기어올라 기대앉거나 다른 공간을 들여다보는 것이 '재미있다'고 평가하였다. 그 밖에 원색컬러의 의자나 책상, 책꽂이 등에

대해 '예쁘다'고 평가하며 좋은 장소로 선호하였다. 특히 할만한 부분은 자동 대출반납기 및 도서검색대에 대하여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조작하기 쉬워서', '빨라서' '편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좋은 장소로 지목하였다.

4. 장소를 구현하는 구성요소의 특성

<그림 3>~<그림 6>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장소를 기본구성요소별로 정리하고 장소이미지로써 평가하는 요소의 특성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또한, 각 요소별로 본 조사에서 추출된 대표적인 사진조사데이터를 제시하고 유사한 특성을 보인 타 도서관의 사례를 함께 수록하였다.

4.1. 통로와 장소적 이미지

[통로; Path]는 영역과 영역을 연결하는 선형공간이다. 조사대상지에서 장소로 평가된 [통로]의 개념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써 [P-1; 자유동선] [P-2; 평면연결] [P-3; 수직연결]의 형태가 추출되었다. [P-1]의 경우 3도서관 모두 온돌마루로써 어디에나 앉을 수 있다는 점이 [통로]의 기본적인 기능인 원활한 흐름보다 탐색기능이 강한 자유로운 동선과 체류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한 영역과 영역을 연결시키는 넓은 통로의 바닥에 박스형 그림책서가를 분산배치한 영역은 이용자 하여금 이동의 기능과 함께 자유로운 탐색의 기능을 유도하여 '편리하다'는 이미지를 갖게 한다.

[P-2]의 평면연결유형은 영역과 영역의 연결기능이 강하고 폭이 좁은 복도의 요소, 통과와 이미지가 강한 입구의 요소가 추출되었다. 복도의 한 면을 벽면서가로 하면 체류의 벽에 기대어 읽기 좋은 거점영역으로써 '아늑하고 편리하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복도의 한 면을 전면창으로 하면 이동하면서 바깥풍경을 연속적으로 볼 수 있어서 '재미있다'는 평가를 내었다. 또한, 독립된 실로의 연결통로인 입구에 대하여 문이 없이 문틀로만 구성한 것은 '드나들기 편리하다'고 평가하였다.

[P-3]의 수직연결로써 주로 층을 연결하는 계단, 영역과 영역을 연결하는 단차 등의 장소에 대해서는 저학년의 어린이들에게 있어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동행위 자체에 '재미있다'는 평가를 하는 반면, 고학년의 경우 '이동이 힘겹다', '어린이에게는 위험해 보인다' 등의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계단의 디딤판의 넓이나 단의 높이, 난간의 손잡이 등에 세심한 배려가 있다면 계단이나 단차는 어린이에게 있어 '재미있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거점영역과 장소적 이미지

[거점영역; Occupancy Place]은 중심성이 있으며 한계

통로 Path

형태유형		주요인상 및 의미	사진촬영조사사진		국내외사례사진	
형태개념	세부특성		사진촬영조사사진		국내외사례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른 플랜+은돌마루의 자유로운 착석 행위가 가능한 장소 눈높이 아래공간, 특히 바닥면의 기능이 강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을 꺼내 바로 읽을 수 있다 어디에나 앉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 산만하다(고학년) 				
P-1 자유동선			그림책올바닥서기 (B관)		그림책올바닥서기(프랑스Yorcenar L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도형태의 이동행위 중심의 공간 통과행위 중심의 입구 은돌마루의 경우 한정된 아지트공간으로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도의 창을 따라가면서 밖을 보는게 재미있다. 바닥이 시원하다 한쪽벽에 기대어 책 읽기에 좋다 문이 없어 드나들기에 편하다 				
P-2 평면연결			복도에 놓인 벽면서기(B관)	이야기방으로의 통로(B관)	복도의 전면창 (Y관)	벽화가 그려진 연결통로 (순천 기적의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단, 경사로 등 공간과 공간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재미있다 (저학년) 올라가게 힘겹다/어린이에게는 위험해 보인다 (고학년) 				
P-3 수직연결			층간 내부계단 (Y관)	다락방으로의 들음계단(U관)	2개영역의 분리과 연결 (제주기적의도서관) (노티나무도서관)	

<그림 3> 장소이미지를 나타내는 [통로]요소의 특성

거점영역 Occupancy Place

형태유형		주요인상 및 의미	사진촬영조사사진		국내외사례사진		
형태개념	세부특성		사진촬영조사사진		국내외사례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의 정위지점/ 타인과의 접촉지점/ 기동이나 책, 의자, 소품을 중심으로 발생됨. 영역확장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사방으로의 시야는 연속적이며 행동의 제약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 재미있는 '책'이 많아 좋다. 어디에나 앉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 					
OP-1 중심원			기동/좋아하는 책이 중심이 된 거점 (B관)	Y관	원형테이블/ 등반이용중심이 된 거점 (Rotterdam Lib.) (파주시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또는 간여벽의 한면, 2개면을 매개로 위요된 영역 시각, 청각, 후각적 연속성은 유지됨 영역의 한계는 물리적 매개체에 점점 더 의존되어 한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가와 가까워서 편리하다 아늑하다 나만의 장소이다 					
위요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성, 3면 이상의 벽에 의해 위요된 영역 천정과 높이 변화에 의해 위요감에 차이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롭다 조용하다 예쁘다 환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마감재료의 특성에 의해 위요영역의 한정성이 강하게 결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드럽다 폭신폭신타다 자유롭다 	15명수용가능한 독립실 (B관)	계단아래 다락방 (B관)	중이층의 다락방 (부평청개구리도서관)	
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의 거드름이 지점까지를 감싸는 좌면의 위요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하다/시원하다 재미있다 기대기 편하다 	카페트로 마감된 자유독서영역 (Y관)	자유독서영역 (B관)	자유독서의 구획영역 (Rotterdam Lib.)	카페트마감영역 (Machida L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워싸임의 높이변화, 폭의 변화 등에 의해 위요감에 차이가 있음 		어린이의 신체크기를 고려한 가구 (B관)		단차를 이용해 구획된 작은 독서영역 (Rotterdam Lib.) (Hakada 초교)	
OP-2 물리적 위요							

<그림 4> 장소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점영역]요소의 특성

가 있는 영역성의 면적 공간이다. 장소로 평가된 [거점영역]의 개념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서 [OP-1;중심원] [OP-2;물리적위요]의 형태가 추출되었다. [OP-1]의 경우, 오픈 플랜에 있어서 자아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중심은 정해지며 그 자체가 [거점영역]의 시작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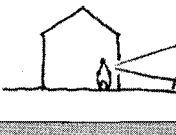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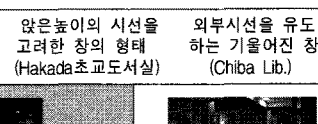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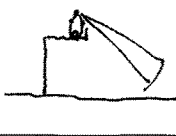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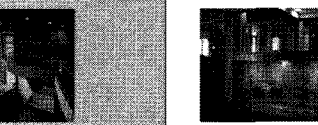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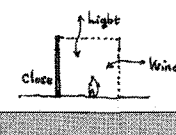




이동을 멈추고 혼자 또는 타인과 접촉하며 일정시간 체류한 지점, 좋아하는 책이 있는 지점, 눈에 띄는 기동, 시선을 이끌거나 주의가 환기되는 지점, 특정가구나 소품이 있는 지점이 모두 중심이 될 수 있으며, 내부로 인식되는 영역의 범위는 중심에 대한 집중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된다.

[OP-2]의 경우, 물리적 요소에 의한 영역의 위요에서는 매우 다양한 척도가 읽혀졌다. 서가의 한면, 서가와 서가 사이 공간은 도서관에 있어서 어린이의 유용한 독서공간으로써 바닥에 앉았을 때 타인에게 몸이 가려지거나 몸을 에워싼다는 느낌이 '아늑하다', '나만의 장소이다' 등 아이트로 인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야기방처럼 벽으로 둘러싸인 독립실이나 다락방

처럼 천정고가 낮은 곳일수록 위요감은 한층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벽으로 에워싸인 장소에 대하여 '조용하다', '자유롭다' 등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평가이지만, 들어가 앉았을 때 시선이 닿는 벽면의 컬러, 그림, 모양, 마감재료의 특징 등에 대한 '예쁘다', '환하다' 등의 평가가 장소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에는 주목할 만하다. 또한, 바닥의 마감재료에 차이를 두거나 신체의 겨드랑이 지점까지만 감싸더라도 어린이는 위요감을 느끼면서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아늑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벽으로 둘러싸인 정형적인 공간보다 앉거나 기댔을 때 신체에 닿는 부위를 부드럽거나 폭신평신했던 천으로 마감했을 때, 신체크기에 꼭 맞는 위요공간일 때 더욱 다양한 인상과 함께 좋은 장소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3. 경계와 장소적 이미지

[경계; Edge]는 안과 밖, 이곳과 저곳을 구분하는 구획

경계 Edge				
형태유형		주요인상 및 의미	사진촬영조사사진	국내외사례사진
형태개념	세부특성			
In & 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벽에 의해 안과 밖이 구분됨 앉거나 섰을 때 눈높이아래로 밖이 내다보이는 외부창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다 밖을 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다 창밖에 나뭇잎 쌓여 있는 것이 폭신평신했 것 같다 창을 바라보고 앉으면 환하다 	 바깥풍경이 내다보이는 외부창 (U관)  얇은높이의 시선을 고려한 창의 형태 (Hakada초고도서관)  외부시선을 유도하는 기울어진 창 (Chiba L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직으로 구분된 공간으로써 윗공간으로부터 아래공간이 내려다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가 내려다보여서 재미있다 기어올라가 않으면 여행하는 기분이다 	 유리, 프레임난간으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상층부 (U관)  다락방의 프레임난간 (부평청계구리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벽에 의해 이곳과 저곳이 구분됨 경계영역 (창틀과 같은)은 이곳과 저곳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들어다보는 것이 재미있다 들어다보면 환하다 	 서기뒷면, 내부창틀 이용해 두공간을 각적으로 연결함 (B관)  아래가 내려다보이는 창 (영국 Peckham L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에 의해 안과 밖이 구분됨 벽의 재료에 따라 빛, 바람, 냄새 등이 투과되거나 감각자극의 연속성이 유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해서 책이 읽고 싶어진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유리, 유리블록으로 마감되어 빛, 공기, 열환경에 영향을 미침 (B관)  좌동일 (진혜기적의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의 재료에 따라 안과 밖이 명확히 구분됨 어디에 정위하느냐에 따라 안과 밖은 수시로 변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신평신했다 부드럽다 색이 예쁘다 시원하다 	 바닥마감재료를 다르게 하여 시각적, 행동적 영역을 구분함 (B관)  좌동일 (Machida Lib.) (파주시도서관)

<그림 5> 장소이미지를 나타내는 [경계]요소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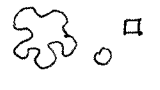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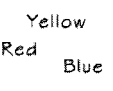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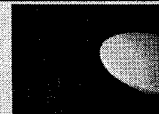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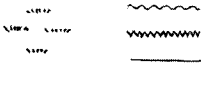









성을 갖는 선 또는 면적 매개이다. 장소로 평가된 [경계]의 개념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써 [E-1;외부창에 의한] [E-2; 층구분에 의한] [E-3; 내부창에 의한] [E-4; 벽재료에 의한] [E-5; 바닥재료에 의한] 의형태가 추출되었다.

[E-1] [E-2] [E-3]의 '창'과 '난간'은 책을 읽는 장소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재미있는', '환한', '따뜻한' 장소로써 매우 자주 지목된 요소이다. 내다보거나 들여다보거나 내려다보는 행위는 이곳에 있으면서 저곳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위치한 곳의 영역성을 강화시켜서 더욱 '아늑하다'는 느낌과 함께 상대적으로 다른 곳의 호기심을 자극시켜서 '재미있다'는 평가로 전개될 수 있다. [E-4] [E-5]의 벽이나 바닥감재료에 의한 영역의 구획은 거점영역을 선택하거나 책을 읽는 행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창이나 유리블록의 벽을 통해 유입된 빛에 의해 방이 환해지거나 따뜻해지면 '책이 읽고 싶어진다', '따뜻하다'의 평가를 한 반면, 창문틀을 통해 새어 들어온 냉기로

'공기가 시원하다' 등의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E-5]의 경우, 바닥이 온돌마루와 카페트 마감의 경계에서는 폭신 폭신하고 부드러운 카페트나 천으로 마감된 곳을 좋은 장소로 평가하였고, 창을 통해 바닥에 빛이 비춰진 양지와 그늘진 곳의 경계에서는 따뜻한 곳을 선호하기도 하고 선선한 그늘진 곳을 선호하기도 하는 등 동일한 평면에서도 장소로써 평가하는 정황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4.4. 표식과 장소적 이미지

[표식; Mark]는 주변과 차별되는 특정의 물리적 요소이다. 장소로 평가된 [표식]의 개념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써 [M-1;자연의 도입] [M-2; 스케일 차이] [M-3; 특이형태] [M-4; 감각자극의 재료사용]의 형태가 추출되었다. [M-1]의 경우, 실제 녹색의 식재, 작은 꽃화분, 바깥 풍경으로 보이는 나뭇잎, 나무모양의 테이블이나 의자 등은 '반갑다', '자연스럽다', '친근하다' 등의 분위기를 조

표식 Mark							
형태유형		주요인상 및 의미	사진촬영조사사진		국내외사례사진		
형태개념	세부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밖 풍경 화분, 나무 키 큰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스럽다 친근하다 반갑다 					
M-1 자연의 도입			통나무모형소풍 (Y관)	모형나무 (Y관)	창가의 화분	식재 사용 (대전홍도 어린이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면 벽화 공간 안의 공간 좁은 기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이 예쁘다 아늑하다 자유롭다 예쁘다 					
M-2 스케일 차이			공간안의 공간 (B관)	공간안의 공간 (순천기적도서관)	구조기둥의 구성요소화 (노원정보도서관)	거인나라 책 (의정부어린이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형 등 장식품 쿠션 등 점유하기 쉬운 작은 가구나 인테리어소품 모빌 등 움직이는 소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양이 예쁘다 따뜻하다 특이하다 					
M-3 특이형태			책모양의 소파 (B관)	모빌인형 (U관)	특이모양의 책상 (U관)	캐리커인형 (Chiba Lib.)	특이장식의자 (Rotterdam L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에 띄는 원색 컬러의 포인트 조화로운 컬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이 예쁘다 화려하다 					
Yellow Red Blue			원색컬러의 의자와 서가 (Y관)	원색컬러의 의자와 서가 (U관)	화려한 컬러의 블라인드와 안내부스 (프랑스YorcenaLib.)	화려한 컬러의 블라인드와 안내부스 (순천기적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드러운 촉감 엠보싱 광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드럽다 폭신폭신하다 시원하다 					
			부드러운 평상 (B관)	폭신한 쿠션방석 (Y관)	폭신폭신한 기둥 (U관)	폭신폭신한 매트 (부평청개구리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모듈이 작은 재료의 반복사용 벽돌치장쌓기, 돌 마감의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하다 자연스럽다 아늑하다 					
M-4 감각자극의 재료사용			벽돌장식벽 (Y관)	기둥의 벽돌장식 (U관)	벽돌 장식벽 (성남도서관)	벽돌장식벽과 마루 (Chiba Lib.)	

<그림 6> 장소이미지를 나타내는 [표식]요소의 특성

성하여 좋은 장소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았다. [M-2] [M-3]의 경우, 주변공간과 크기가 눈에 띄게 다른 크거나 작은 공간, 특이한 모양의 가구나 소품 등은 어린이에게 있어서 쉽게 인지되는 마크의 효과가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거점영역]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M-4]는 주로 시각, 촉각(시각적 재질감을 포함한)의 감각을 자극하는 마감재료에 의해 마크되는 유형이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원색 포인트 컬러, 실제로 앉거나 기댔을 때의 부드러움이나 폭신한 촉감이 기억에 남았던 장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던 벽돌장식벽 옆의 테이블석 등은 좋은 장소로 기억되었다.

4.5. 구성요소의 상호관계

본 연구에서 기본구성요소로 제시한 [통로], [거점영역], [경계], [표식]은 장소이미지로 인식될 때 별도의 독립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서로 상호 연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거점영역]과 [통로]는 상호의존적이며 때로는 중첩되기도 한다. [통로]가 갖는 선적인 연결성이 [거점영역]을 발생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거점영역]과 [거점영역]과의 긴밀한 관계는 [통로]를 생성시킨다. 또한, 온돌마루의 경우 [통로] 그자체가 [거점영역]의 기능으로 변환되기도 한다.

[거점영역]과 [경계]요소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경계]요소의 형태를 어떻게 정의하고 표현하는가에 따라 [거점영역]의 분위기와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계]요소 가운데에서도 시선의 눈높이, 창고의 크기와 위치, 마감재료의 투과성, 천정고 등은 [거점영역]의 다양한 분위기와 성격을 규정짓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로]와 [경계]의 관계도 상호의존적이다. [통로]는 [거점영역]에 닿으면 두 요소 사이에 [경계]가 발생하고 [거점영역]의 성격에 따라 [경계]요소의 특징도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온돌마루에 있어서 [통로]에 대해 선형적인 흐름을 갖는 면적 요소로 인식할 경우, 이에 면하는 다른 영역과의 [경계]요소, 예를 들어 옆으로 긴 연속창과 같은 요소는 [통로]의 분위기와 기능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다.

[표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린이에게 있어서 좋은 [장소]로서 인식시키는데 충분한 마크의 효과를 갖는다. 컬러, 특이형태, 스케일의 차별성, 감각을 자극하는 재료 마감 등의 표현은 독립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지만, [통로] [거점영역] [경계]요소와 조화를 이루면 더욱 풍요로운 이미지의 좋은 장소로 평가되고 공간의 정체성을 높여 지속적으로 좋은 장소로 기억하게 된다.

5. 결론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평가법(caption evaluation)'이라는 조사방법

을 이용하여 기존의 선호도 조사방법에 있어서 수동적인 반응에 머물렀던 이용자의 평가내용을 보다 능동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용자의 심리적 평가구조와 물리적 요소의 특성 간의 상호 관계에서 정성적인 분석을 행함으로써 기본적인 공간구성의 요소 뿐 아니라 어린이의 신체에 긴밀하게 관여하는 인테리어 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척도의 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둘째, 어린이들이 좋은 장소로 평가한 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한 4개의 분석틀 즉, [통로; Path] [거점영역; Occupancy Place] [경계; Edge] [표식; Mark]별로 좋은 장소에 대한 주요한 인상, 물리적 요소의 특성, 사례사진을 정리하였다. 특이할 만한 요소로서는 [경계]의 대표적인 요소인 '창(window)'은 다양한 면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흥미롭고 쾌적하며 재미를 더해주어 책을 읽는 행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앉거나 기댔을 때 신체부위에 접촉하는 면의 마감재료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세심한 평가를 하고 좋은 장소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셋째, 장소를 구성하는 기본구성요소는 독립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적으로 또는 상호보완적으로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공간의 풍요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좋은 장소로 기억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공의 어린이공간에 있어서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구성과 함께 풍요로운 이미지로 오래 기억에 남는 장소를 구현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경험적이고 능동적으로 찾은 좋은 장소와 그 평가내용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공간분위기를 갖는 3가지 유형의 어린이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사진평가조사를 통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장소의 특성을 세밀하게 읽을 수 있었다는 점, 심리적 평가 및 물리적 요소와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구성요소의 단적인 부분 뿐 아니라 구성요소간의 상호관계로부터 풍요로운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장소의 패턴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에드워드 렐프저,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옮김, 논형, 2005
2.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60
3. C.N.Schults, 실존·공간·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85
4. C.W.Moore玉井一國 譯, 建築デザインの基本, 鹿島出版會, 1980
5. G.Allen,D.Lyndon, 주택의 장소성, 광해선 역, 도서출판 국제, 1984
6. 空間認知の發達研究會編, 空間に生きる, 北大路書房, 1995
7. 重村力ほか, 寫眞撮影法による環境イメージの分析, 日本建築學會 大會學術講演梗概集 E分冊, 1993.

[논문접수 : 2010. 08. 31]

[1차 심사 : 2010. 09. 17]

[게재확정 : 2010. 10. 08]